

대림 제1주일

제 1 독서 : 이사 2, 1-5

제 2 독서 : 로마 13, 11-14a

복 음 : 마태 24, 37-44

순정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감웃을 입읍시다”
(로마 13, 12).

강론

“우리 민족의 구세주는?”

박병준 신부 / 부안 천주교회

대림 첫주일이다. 한해가 가고 또 한해가 시작되었다. 지난해 첫날에도 구세주 빨리 오시라고 기도했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한다. 그렇다면 아직도 구세주가 안오셨는가? 아니면 구세주는 이미 와 계시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구세주를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구세주는 나와 내 친지들에게 복만 많이 내려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구세주(求世主) 말 그대로 온 세상과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 이웃에 가난한 이들, 억눌려 사는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구세주가 오시라고 단 한 번이라도 기도했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는 점점 더 골이 깊어지고 있고, 온갖 불의와 부정부패로 인해서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거기다 지방색까지 나타나서 조그마한 우리 땅덩이를 갈라 놓고 있다. 여기에서 가난한 이들, 억눌린 이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들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구세주를 어떻게 오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면서 그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준비하는데 온갖 정성을 쏟는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해 놓고 가슴 졸이며 그를 기다린다. 구세주 우리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분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은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회개이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 억눌린 이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들, 온갖 서러움과 고통으로 병든 이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님 구세주 오시기를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인 회개와 좋아하시는 선물인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해방의 기쁜 소식을 준비해 놓고 주님을 기다리자.

마침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의미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다. 이 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참으로 구세주를 제일 많이 닮은 정치 지도자가 탄생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구세주의 마음에 제일 드는 대통령이 탄생하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소리

“최후의 대통령”

며칠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 유배 4주년을 맞아 가족 및 측근들과 함께 다시 백담사를 찾는 모습을 보고 새삼 세월의 덧없음을 느껴보았다.

텔레비전의 화면에 비친 그의 표정은 미소까지 띠어 밝아보였으나 그곳에 머무는 동안 시종 감회에 젖어 있었다는 보도였다.

5년 전 눈물바람으로 부부가 쫓기다시피 유배를 떠났을 때와 소풍하는 마음으로 옛 유배지를 둘러보게 된 지금의 흥가분한 처지를 대조해보면 당사자로서 어찌 아니 감회가 새로웠으랴.

장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이같은 동정에 접한 많은 국민들도 각기 착잡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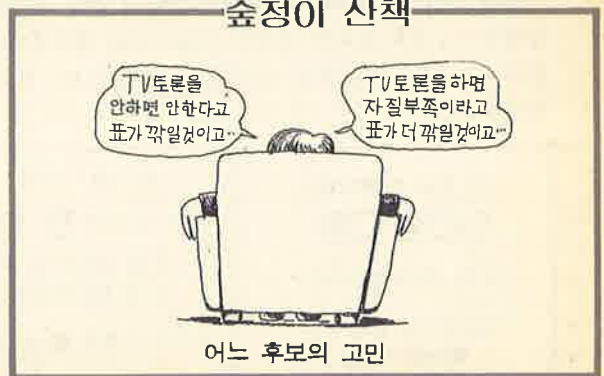
그는 왜 유배를 가야 했던가. 2년간의 유배로 유배를 떠나야 했던 이유가 모두 해소되었는가. 그의 철권정치로, 아니 그가 집권하기까지의 몇몇 고비에서 혈육을 잃기까지 했던 이들의 회포는 또 어떤 것일까. 이들에 대한 보상은 모두 이루어진 것인가.

이같은 의문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전 씨의 행보는 극히 자유로워 보인다. 이렇게 될 만큼 인심은 무상한 것인가 보다.

바야흐로 전 씨를 뒤이은 집권자도 권좌를 곧 떠날 차례가 되었고 지금은 그 뒤를 잇고자 하는 이들의 유세전이 한창이다.

집권하기까지의 잘못으로 아니면 권력을 남용해 퇴임 후 유배길에 나서는 전직 대통령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순정이 산책



대림절을 맞이하여

“대림절”

대림이란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상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을 뜻하는 말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전 4주간을 대림시기로 정하여 신자들이 특별한 마음과 노력으로 성탄의 뜻을 되새기고, 세말에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영신적 준비) 회개와 나눔의 삶을 살도록 촉구한다.

대림의 의미

교회 전례상으로 볼 때 대림시기, 즉 대림절은 크게 3가지 뜻을 지닌다.

첫째,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성탄, 즉 첫번째 오심에 대한 준비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강생에 관한 것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시 한번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기이다.

둘째, 대림절은 세말에 다시 오실 성자의 심판에 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종말적 희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영신적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셋째, 우리 마음 안에 은총으로 현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이런 태도는 한마디로 회심이라 할 수 있으며, 대림절은 바로 회심의 시기이다.

대림절의 유래

대림절에 관한 유래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 지방에서 발달한 전례는 1월 6일 주의 공현 대축일을 성탄 축일로 기념하던 4-6세기 경부터 6주간의 대림절을 지냈다. 그런데 로마전례에서는 고유 전승에 따라 로마의 태양신 축일(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축일로 기념하다가 점차 이 축일을 위한 준비시기를 정하였다. 로마에서 대림절이 교회력의 구성 부분이 되기 시작한 것은 그레고리오 대교황(590-604) 시대에 나타나며 이때부터 대림시기의 네 주일 미사가 확정되었다. 그후 속죄와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사상이 유입되어 서서히 성탄 축일 전 4주간의 대림기간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재림과 그 준비로서의 대림의 발전을 보면 초창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우리 주여 오소서.’라고 기도하며 주의 재림을 희망과 기쁨 속에서 고대하였는데 재림은 바로 완성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세에서는 재림을 하느님의 의노(義怒)의 날로 여겨 공포와 전율 속에 맞는 것으로 생각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쁨 속에 기다리는 낙관적인 기다림의 모습을 되찾고 있지만 온전한 기쁨을 현세의 기다림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기쁨은 그리스도만이 완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 시기에 갖는 우리의 기쁨은 앞으로 맞게 될 주님과와의 일치에서 오는 기쁨의 일부라고 하겠다.

현대에 와서는 두 가지 의미, 즉 성탄의 기념적 성격과 미래지향적 성격이 상호 절충, 조화되고 있으며 특히 초대교회의 대림절을 특징짓는 기쁨의 성격이 부각된다. 그래서 1917년 이후의 교리법에는 대림절 동안의 단식 또는 금육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이 발달해온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 경고, 희망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며 회개와 속죄를 통한 결단이 필요하다. 대림절 기간에는 사제의 제의도 회개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뀌고 특별한 축일을 제외하고는 ‘대영광송’도 하지 않는다. 대림 1주는 정해져 있지 않고 11월 30일에 해당하는 주일이나 이날에 가장 가까운 주일로 정해진다. 그래서 12월 16일까지는 종말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미래적 성격을 강조하고,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주님 탄생의 기념적 성격을 강조한다.



<p>그릇 혼수 전문백화점 아리랑 그릇 박 희 제(그레고리오) 이리 허영근 약국 골목 ☎ 842-4976</p>	<p>금·은·시계 전주 오거리 천 보 당 손 한 성(바오로) 정 정 남(가타리나) 고사동 오거리 ☎ 84-4138, 253-0707</p>	<p>현대 미용학원 미용·피부,본과,연구과 ☎ 86-2211,254-3003 김금순(데레사) 진북동 제일예식장 맞은 편</p>	<p>연지 화장품 최 선 남(모니카) 관동로 사거리 민중서관 앞 ☎ 85-2880</p>
---	--	---	--

잡간

“교구보 숲정이 창간 20주년을 맞으며”

20년 전인 1972년 대림 첫주일에 우리 교구보 「숲정이」가 창간호를 냈다. 처음 얼마 동안은(55호까지) 전주 시내 6개 본당의 합동 주보 구실을 했다. 그러다가 1973년 말에는 교창·김재·부안·정읍지역의 6개 본당이 동참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2년 조금 못되는 1974년 11월, 102호부터 교구보의 꼴을 갖추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70년대 초에 들어와 한국천주교회는 교구보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맨 먼저 인천교구가, 다음으로는 부산교구와 우리 교구 순으로 교구보를 만들었다. 이리다가 1980년대 초에는 모든 교구가 교구보를 갖게 되었다.

교구마다 서둘러서 교구보를 만들기 훨씬 오래 전부터 한국천주교회 주교직의는 월간 「경향잡지」를 기관지로 내고 있다. 또 대구교구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내는 「가톨릭신문」도 있다. 그리고 근년에 들어서 서울교구도 주간지 「평화신문」과 「평화방송」(FM)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당의 주보 체제가 교구보로 바뀐 뒤에도 본당 나름대로 월보들을 내고 있다. 홍보 매체의 중요성 때문이리라.

우리 교구보가 첫선을 보일 때, 당시의 교구장 서리인 김재덕 신부(제5대 교구장 주교)께서는 축사의 말씀에서 몇 가지를 당부했다. “주보는 주일과 축일이 지나는 전례적 의의, 신앙 교리 지식, 교회 소식, 사목활동의 지침 등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복음선포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교구보로 창간된 지 20주년을 맞는 우리 숲정의 역할과 위상은 어떠했는지가 궁금하다. 또한 교구보에 대한 우리 교구 공동체(사제·수도자·평신도)의 관심은 어떠했는지도 말이다.

교구소식

1. 성서 특강: 12월 5일(토) 오후2시-5시 창인동 성당, 강사-왕수혜 신부, 제목-예언서.
2. 가톨릭 문우회 모임: 12월5일(토) 오후3시 교구청 별관1층 소강당.
3. 가톨릭 언론인회 모임: 12월6일 오전8시 가톨릭센터에서 출발.
4. 전주교구 휘폴라레 모임: 12월6일 오후2시-5시 가톨릭센터 3층, 대상-초·중·고·성인.
5. 성모의 기사회: 12월5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6. 푸른군대 피점: 12월3일(목) 오전10시 덕진 성당.
7. 전화번호 안내: 오룡동 성당 FAX (0654)63-7212.

※ 축! 영명: 30일(성안드레아) 박종근, 김태윤, 박성팔 신부님.
3일(성프란치스코 사베리오)고경훈, 주목성 신부님.

- 성소모임 성바로말수도회: 12월6일 오후2시 성바로 서원 (0652)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12월6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치약 대신 양치염으로

합성세제가 함유된 치약보다는 양치염을 사용합시다. 치아에도 좋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양치시 물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요심이 김병오 (1008)



사무장 구함

성실히 봉사할 일꾼을 찾습니다.

- 구비서류: 이력서 1통
본당신부님 추천서 1통
- 연락처: (0652) 86-5022

천주교 인후동 교회

1993학년도 유치부 원아모집

호남유년종합학원 252-7313
새호남유년종합학원 253-1411
호지유년종합학원 221-8331
원장 유 병 철(베드로)
원감 박 경 애(안젤라)

양재·한복·흠패션 노라노 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견안드레아)
동부시장은·민정당시원
☎ 86-2715
* 냉난방 완비

명승카인테어·세차장

자동차 부품 일절
자동차 상담 전문
송 주 원(리우렌시오)
전북은행 본점 옆
☎ (0652)75-2270~1
호출기 012-684-0107

태화 신발 백화점

신사회·숙녀화] 총판매장
아동화·특수화
김 문 식(베드로)
풍납문←→송약국 사거리
☎ 82-3118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문구 사무용품 도매 전문 남문노트사

원 수 관(야고보)
심 경 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앞
☎ (0652) 83-3352
FAX 83-772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동주

- ※ 대림 제1주일:** 대림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반대할 연도대회에 협조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사목회임원보선: 부회장-정원용(아레사)→김규례(베로니카), 구역분과차장-김상숙(헤레나)→최영숙(테레사) 반회장(중노22반)-최남순(헤레나)→조부식(글라라) 수고하시겠습니다.
2. 기정방문: 1일-중노5반, 2일-중노6반, 3일-중노7반, 4일-중노8반, 3. 성시간: 3일(저녁미사 후) 4. 사목회상임: 4일(저녁미사 후) 5. 병자봉성체: 4일, 사무실에 신청, 6. 성령기도회: 7일~12일, 후7시30-10시, 회비-2,000원, 7. 모임: ①성심회, 자모회총회: (1일 어머니미사 후) ②반회장: 3일(전10시30) ③올드레야: 6일(장엄미사 후) 8. 축! 촛! 촛! 신부-문영호, 신부-한정희(골로디다) 6일 후12시, 9. 금주청소: 중노27, 인후1반, 차주청소: 인후2반, 3반.
- ☐ 지난주 봉헌금: 756,910원 ☐ 교무금: 1,903,000원

-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인
1. 판공성사: 12월3일(목) 오후6시-8시 다가동, 중앙동, 교사동, 진북동, 12월4일(금) 오후6시-8시 태평동, 완산동, 기타, 12월5일(토) 오후4시30분-6시 학생, 직장인.
2. 성당보수공사 헌금: 김용수(20만원) 안나희(11만9천원) 김수복, 강기연, 전경순(각10만원), 최현순, 안윤정, 김순자, 권민, 이경태(각5만원), 김은자(3만원), 정승훈(2만원), 이억래, 이덕순(1만원).
3. 성체감복: 12월 3일(목) 저녁미사 후.
4. 회합: ①올드레야(12월1일 저녁미사 후) ②자모회(3일 오전10시) ③사목회(6일 저녁미사 후) ④대전회(6일 공식미사 후)
5. 축! 촛배: 12월5일 12시30분, 신랑-한아오스명균, 신부-홍성희양 ☐ 지난주 봉헌금: 562,270원 ☐ 교무금: 1,069,200원 차주전래: 최옥남, 독서-강기연씨 부부, 봉헌-강진혜씨 가족.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동욱

- ※ 은인을 찾습니다:** 수녀원 신축에 따른 각종 가전제품, 주방용품, 융절설, 침대, 책상, 커튼 등을 기증하십시오.
- 대림 제1주일:** 아기에수의 탄생을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5일(토) 저녁미사 후, 3. 한자판공: 1일(화) 4. 교리교사를 위한 헌금: 오늘 모든 미사 중, 5.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다음주) 7. 수녀원 신축헌금: 금주봉헌-144만원, 총액-3,919만원, 8. 설서읽기: 시편11편~20편, 9. 청소년봉사: 평화의 모후Pr, 10. 금주전래: 해설-유만순, 독서①강덕용 ②최영숙, 봉헌-하태중, 이명수씨 부부, 차주전래: 해설-김영신, 독서①정광삼 ②송경자, 봉헌-유순철, 유춘근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306,000원 ☐ 교무금: 244,000원

*** 서화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용

- ※ 대림 제1주일!**
1. 회의: ①사목회-12월2일(수) 오후7시30분 ②자모회-12월2일(수) 오전10시30분 ③반장회-12월6일(일) 공식미사 후 ④꾸리아-12월6일(일) 오후2시.
2. 모임: ①올드레야-12월9일(수) 오후7시30분.
3. 알림: ①레지오마리아에 연차 총친목회: 12월3일(목) 오후7시(전원 참석요) ②92년도 가을 판공성사-12월8일(화)~성탄절까지 평일미사 전후 ※ 일요일, 월요일은 제외 ③판공성사표-12월8일(화)부터 사무실에서 발부함 ④93년도 교무금 신일-판공성사표 배부시 필히 신일바람, ⑤판공성사표 발부시에 있던 판공비 금년에는 없음.
- ☐ 지난주 봉헌금: 684,750원 ☐ 교무금: 1,50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 대림 제1주일**
1. 대림절: 성미모음(형제의 몹)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2. 오늘 공식미사 후: 요셉회, 사랑회, 많은 참여바랍니다.
3. 꾸리실로 참가하실 분(남,여):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뜨개질(블루이웃들기) 다 하신분: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5. 교무금 납부에 정성을 다합니다.
6. 청소년봉사: 1구역 4반, 5반.
- ☐ 지난주 봉헌금: 121,300원 ☐ 교무금: 687,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삼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태

- ※ 대림 제1주일입니다.**
1. 금주: ①승인강좌(전9:30 가톨릭센터) ②차량축성식(공식미사 후) ③청년연합회 상임위원 모임(저녁미사 후) 2. 성가정회: 12월1일 오전11시, 3. 판공성사시작: 12월1일부터 오전10시~12시, 미사 전후(동별일정 게시판 참조) 4. 성체감복 및 조배: 3일 오전10시, 5. 병자영성체: 4일 오후2시, 6. 베에따회: 5일 오전10시, 7. 글로리아 성가대 발표회: 12월5일 오후7시30분(행사관계로 이날(5일 토요일)만 특전미사는 6시30분에 강당에서 있음) 8. 감사합니다: 성당외자, 방석기증(140만원, 자모회) 9. 차주: ①계속글라라 형제회(후1시30분)
- ☐ 지난주 봉헌금: 1,699,32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삼근

- ※ 대림절:**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사랑나눔의 삶을 살피다.
1. 반석회: 11월1일(화) 전10시30분, 불참시는 대리인 참석.
2. 성시간, 성체감복: 3일(목) 저녁7시30분, 대림의 의미.
3. 유아세례: 5일(토) 오후3시,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랍니다.
4. 기정방문: 1일(화) 후2시30분-10구역3반(203동) 3일(목) 전9시-10구역6반(206동) 후2시30분-12구역1반, 4일(금) 전9시-12구역2반, 후2시30분-12구역2반.
5. 대림절 분담 판공 참고지: 13일까지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6. 자모회 임원개편: 회장-박성자, 부회장-변정남, 총무-이연옥, 서기-박옥자, 수고하시기 바라며 축하드립니다.
7. 교무금 봉투: 사무실에 두지 말고 가져가십시오.
- ☐ 지난주 봉헌금: 951,850원 ☐ 교무금: 1,648,8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병길

1. 구역장월례회: 12월1일(화) 오전11시(성당)
2. 학생회 정기총회: 5일(토) 오후6시.
3. 사목회: 다음주일 오후7시, 구양수(요셉)동남삼정APT 3동305호.
4. 레지오 단합대회: 12월6일(일) 미사 후.
5. 교무금 납부를 바랍니다.
6. M.B.W교육을 잘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강사님들과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 유아세례: 12월13일(일) 미사 후-사무실에 신청해 주셔요
8. 주일미사안내: 새벽미사-오전6시(12월 첫주부터) 금주전래: 장병순, 독서·봉헌-유경희, 김홍식, 차주전래: 한병갑, 독서·봉헌-서미숙, 손인호.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석희
사목회장이 동섭

- ※ 대림 제1주일(전례력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날).**
1. 유아세례: 오늘오후4시(2시까지 사무실에 접수요)
2. 영세자집중교리: 12월1일(화)~5일(토) 영세식은 6일(일) 오후2시.
3. 애령회: 오늘 공식미사 후(교육관)
4. 사목회: 12월4일(금) 오후8시(각 분과예산 오늘중으로 제출요)
5. 대림시기 특별강론: 12월6일(주일), 12월20일(주일), 공식미사 중에.
6. 구역 판공성사 일정: 12월8일(화)부터 17일(목)까지 매미사 직후에 보게요. (구역별 일정은 게시판 참조)
7. 구역봉사자 피정: 12월9일 10:30~오후4시(교육관)
- ☐ 지난주 봉헌금: 1,214,430원 ☐ 교무금: 2,394,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익도

1. 모임안내: ①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②요셉회-공식미사 후, ③여성분과회-4(금) 10시미사 후.
2. 판공성사: 1(화) 저녁7:30 상호1,2반, 2(수) 저녁 장승3반, 3(목) 상호3,4반, 4(금) 오후2시 두현리, 저녁-한스 3,4반.
3. 판공성사 보낼 가정방문이 있으니 반회장님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모임: 꾸리아, 연총친목회, 자모, 성모, 성심회, 신축헌금봉헌액: 80,000원
금주전래: 해설-김낙원, 독서-①이종진 ②정명희 봉헌안내-박윤업 부부, 정경수 부부
차주전래: 해설-김홍동, 독서-①임승동 ②문영주 봉헌안내-소철영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1,202,650원 ☐ 교무금: 3,621,000원